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리주의자 국어 모의평가 1회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⑤	2	35			35		
2	④	2	19	④	2	36			36		
3	②	3	20	②	2	37			37		
4	②	2	21	②	3	38			38		
5	⑤	2	22	③	2	39			39		
6	①	3	23	①	2	40			40		
7	③	2	24	④	2	41			41		
8	①	2	25	③	2	42			42		
9	⑤	2	26	⑤	2	43			43		
10	①	2	27	③	3	44			44		
11	④	3	28	④	2	45			45		
12	④	2	29	③	2						
13	⑤	2	30	④	2						
14	③	2	31	①	3						
15	②	2	32	②	2						
16	③	3	33	①	2						
17	②	2	34	⑤	3						

<예상 정답률>

예상 정답률	문항 번호
20% 미만	10, 11
20% 이상 40% 미만	6, 15, 16, 23, 27, 34
40% 이상 60% 미만	3, 5, 8, 12, 13, 14, 21, 26, 29, 30, 31, 33
60% 이상 80% 미만	4, 9, 19, 20, 24, 25, 28, 32
80% 이상	1, 2, 7, 17, 18, 22

<해설지 목차>

○ [1~3] 독서 이론, '독서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연구'	1
○ [4~7] 사회, '국가의 정치 체제와 자유도를 측정하는 지표'	2
○ [8~11] 기술, '이진법의 원리와 한계'	6
○ [12~17] 인문, (가) 과거 시험의 연원과 고려의 과거제 / (나) 조선의 과거제	10
○ [18~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조웅전'	15
○ [22~27] 갈래복합 - (가)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나) 윤동주, '참회록' / (다) 정약용, '여유당기'	18
○ [28~31] 현대소설 - 염상섭, '만세전'	22
○ [32~34] 고전시가 - (가) 김병연, '월생원'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정약용, '탐진촌요'	25

[1~3] 독서

[1~3] 독서 이론, '독서 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연구'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3문단에서 한국십진분류법은 듀이십진분류법보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주기가 불친절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듀이십진분류법이 한국십진분류법보다 주기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⑤

[오답해설]

- ① 1문단에서 한국십진분류법은 듀이십진분류법을 모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주어진 그림에 따르면, 한국십진분류법과 듀이십진분류법이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부여한 범주에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가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분류법이 각각 다른 기호를 부여하는 범주의 예시에 기술과학이 예술이 포함된다 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3문단에서 한국십진분류법은 현재 여섯 번째 개정판까지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별치기호의 경우 청구 기호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 기호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기호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보기>에 따르면, 학제간 연구는 어떤 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학문 분야를 취하는 연구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은 단일한 학문을 다루는 도서에 한해서만 분류가 유리한 한국십진분류법에 대한 한계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를 연구한 도서의 경우 사회과학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역사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답 ④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을. ㉠의 338.5는 그림의 한국십진분류법 체계와 대조할 경우, 이 도서가 사회과학 범주

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정. 2문단에서 '김332口'은 저자의 성씨와 도서명의 첫문자를 연관시키는 권차기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을 통해서는 저자의 성씨와 책 제목의 일부분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문단에 따르면, ㉠의 'v.2'는 권차기호로 이 도서가 전집에 속함을 알 수 있고, 전집 도서 중 두 번째 도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의 ㉠, ㉠에 대한 진술은 모두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해설]

갑. 2문단에서 별치기호는 일반 자료와 구분하여 별도의 서가에 도서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기호로 청구기호 최상부에 표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도서가 예약 중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가에 도서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병. 2문단에서 복본 기호는 같은 도서가 두 권 이상 있을 때 그 도서가 몇 번째 도서인지를 알려준다고 하였다. 또한, 복본 기호는 같은 도서 중 첫 번째 도서에 대해서는 'c.1'과 같이 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복본 기호가 표시되지 않은 도서는 같은 도서가 두 권 이상 도서관에 보유된 도서가 아니거나 아니면 같은 도서가 두 권 이상 보유된 도서 중 첫 번째 도서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복본 기호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그 도서가 도서관에 한 권만 보유된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4~7] 독서

[4~7] 사회, '국가의 정치 체제와 자유도를 측정하는 지표'

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1문단에서 명목 척도는 관찰 대상에 의미 없는 수치를 붙임으로써, 등간 척도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상대적인 수치를 붙임으로써 분류한다고 하였다.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외에 상대적인 척도를 측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명목 척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문단에서 Polity V의 경우는 지표를 측정하여 점수를 낸 후, 민주주의, 권위주의, 과도 정부 중 하나로 정치 체제를 확정한다고 하였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점수를 측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olity V와 Freedom House는 등간 척도에 속한다.

정답 ②

[오답해설]

- ① 1문단에서 최소주의적 관점은 선거 등의 제도에 따른 절차적인 정당성만 만족시키면 되고, 최대주의적 관점은 이에 더해 실생활에서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므로 따라서 DD는 최소주의적 관점에 속함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Polity V도 정치 참여의 자유,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의 경쟁력 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 행정부 권력 행사 제한 여부, 정치 참여 규제 여부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만 염두에 두므로 최소주의적 관점에 속함을 알 수 있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노동 조합 설립, 언론 독립 등의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양상까지 고려하므로 최대주의적 관점에 속함을 알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비정부 단체에서 측정하는 지표임을 알 수 있고, 이는 DD와 Polity V와의 차이점임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Polity V는 정치 참여의 자유,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의 경쟁력 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 행정부 권력 행사 제한 여부, 정치 참여 규제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정부·정치의 개방 정도, 부패한 정도, 결사 자유의 정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언론 독립, 사법권 독립, 노동 조합 설립 등 여러 항목을 관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D가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과 4문단에서 DD와 Polity V는 국가의 정치 체제를 측정하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국가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유도를 정치적 자유도와 시민적 자유도로 나눠 측정하므로 따라서, Freedom House는 국가의 정치 체제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표라고 볼 수 없다.

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2문단에서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쟁과 선거의 두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때, 경쟁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당 등의 집단으로 압박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참여는 선거 등의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3문단에서 DD는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1946년에 만들어진 지표라 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DD는 참여의 척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DD는 로버트 달이 중요히 여긴 두 척도 중 경쟁만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D와 로버트 달의 다두정 모두 경쟁과 선거 척도를 고려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해설]

- ① 2문단에서 로버트 달의 다두정은 정치 체제를 직접 비교하거나 자유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론을 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후 DD, Polity V, Freedom House 모두 로버트 달의 다두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쟁과 선거의 두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때, 경쟁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당 등의 집단으로 압박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참여는 선거 등의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4문단에서 Polity V는 행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규제를 관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로버트 달의 다두정은 행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규제를 관측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로버트 달의 다두정과 Polity V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최소주의적 관점은 선거 등의 제도에 따른 절차적인 정당성만 만족시키면 되고, 최대주의적 관점은 이에 더해 실생활에서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로버트 달의 다두정은 경쟁과 참여의 척도만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최소주의적 관점에 속함을 알 수 있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노동 조합 설립, 언론 독립 등의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양상까지 고려하므로 최대주의적 관점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버트 달의 다두정과 Freedom House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명목 척도는 관찰 대상에 의미 없는 수치를 붙임으로써, 등간 척도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상대적인 수치를 붙임으로써 분류한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로버트 달의 다두정의 경쟁과 참여의 두 척도를 이용하여 국가 간의 상대적인 민주주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로버트 달의 다두정은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므로 등간 척도에 속하는 지표의 예시임을 알 수 있다.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보기>에서는 사용하려는 지표에 이미 설명하려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는 더 청렴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반드시 청렴과 관련한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 지표여야 한다.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고, 청렴과 관련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는 사용 가능하다. 4문단에서 Polity V는 정치 참여의 자유,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의 경쟁력 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 행정부 권력 행사 제한 여부, 정치 참여 규제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렴과 관련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정치적 자유도의 항목 중 국가가 부패한지에 대하여 관측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한다면 ‘Freedom House의 점수가 낮은 국가들은 청렴하지 않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Freedom House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부패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부패하다는 것은 청렴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청렴하지 않은 국가가 청렴하지 않다.’라는 동어 반복 명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Freedom House는 위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해설]

②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Polity V는 정치 참여의 자유,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의 경쟁력 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 행정부 권력 행사 제한 여부, 정치 참여 규제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정부·정치의 개방 정도, 부패한 정도, 결사 자유의 정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언론 독립, 사법권 독립, 노동 조합 설립 등 여러 항목을 관측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는 데에는 위 세 지표 모두 적절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Polity V는 정치 참여의 자유,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의 경쟁력 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 행정부 권력 행사 제한 여부, 정치 참여 규제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정부·정치의 개방 정도, 부패한 정도, 결사 자유의 정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언론 독립, 사법권 독립, 노동 조합 설립 등 여러 항목을 관측함을 알 수 있다. 이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노동자의 권리가 더 보장될 것이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 사용할 지표는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특성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Freedom House의 경우 노동 조합 설립 항목을 관측하므로 따라서 동어 반복 명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위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는 DD와 Polity V만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Polity V는 정치 참여의 자유,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의 경쟁력 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 행정부 권력 행사 제한 여부, 정치 참여 규제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정부·정치의 개방 정도, 부패한 정도, 결사 자유의 정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언론 독립, 사법권 독립, 노동 조합 설립 등 여러 항목을 관측함을 알 수 있다. 이때, Polity V의 경우 정치 참여의 자유를 관측하고 있고, Freedom House의 경우는 정치의 개방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정치 참여가 더 자유로울 것이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는 DD뿐이다.

⑤ 3문단에서 DD는 경쟁적인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Polity V는 정치 참여의 자유, 행정부 최고 지도자 선출의 경쟁력 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 행정부 권력 행사 제한 여부, 정치 참여 규제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5문단에서 Freedom House는 정부·정치의 개방 정도, 부패한 정도, 결사 자유의 정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언론 독립, 사법권 독립, 노동 조합 설립 등 여러 항목을 관측함을 알 수

있다. 이때, DD, Polity V, Freedom House는 모두 선거 절차에 대한 특성을 관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 최고 지도자는 권위주의 국가의 행정부 최고 지도자보다는 공정한 선거 절차에 의하여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DD, Polity V, Freedom House 중에는 없음을 알 수 있다.

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분류하다’는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의 의미이므로 ‘나뉜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해설]

- ① ‘특유하다’는 ‘일정한 사물만이 특별히 갖추고 있다.’의 의미이다.
- ② ‘공유하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다.’의 의미이다.
- ④ ‘달성하다’는 ‘목적한 것을 이루다.’의 의미이다.
- ⑤ ‘확장하다’는 ‘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늘려서 넓히다.’의 의미이다.

[8~11] 독서

[8~11] 기술, ‘이진법의 원리와 한계’

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1문단에서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은 모든 비트를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의 경우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모든 비트를 사용하여 최상위 비트의 켜짐과 꺼짐에 따라 음의 정수와 0, 양의 정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N개의 비트를 사용할 때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최댓값은 $2^n - 1$ 개가 되고,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의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는 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최댓값은 $2^{n-1} - 1$ 이 될 것이다. 따라서 $(2^{n-1} - 1) \times 2 = 2^n - 2 \neq 2^n - 1$ 이므로 따라서 동일한 개수의 비트 하에서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최댓값이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이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최댓값의 2배와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해설]

- ② 1문단에서 전자기기는 신호의 켜짐과 꺼짐을 사용하여 이진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자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십진법보다는 이진법이 더 적합할 것이다.
- ③ 1문단에서 이진법은 신호가 꺼질 경우에는 0, 신호가 켜질 경우에는 1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1문단에서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부호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최상위 비트가 0일 경우에는 양수를, 1일 경우에는 음수를 표현한다고 하였으므로, 따라서 양수일 때에는 최상위 비트의 신호를 꺼서, 음수일 때에는 최상위 비트의 신호를 켜서 수의 부호를 표현한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 ④ '17-9=8'을 5비트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7을 10001로, 9를 01001로 나타내서 계산하면 된다. 이때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계산할 때 계산을 할 수 없게 된다. 2문단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십진법에서의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이진법에서는 바로 앞 자리에서 1을 빌려오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17-9=8'을 계산할 때에는 최상위 비트에서만 2를 받아내림하면 $17-9=10001-01001=00100$ 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 ⑤ 3문단에서 이진법의 2의 보수는 이진법의 1의 보수에 1을 더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진법의 1의 보수는 이진법의 2의 보수에서 1을 빼는 것과 같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9.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4문단에서 오버플로는 이진법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댓값을 초월하여 이진법의 표현 가능 범위의 최솟값으로 도출되고, 언더플로는 이진법이 나타낼 수 있는 최솟값을 초월하여 이진법의 표현 가능 범위의 최댓값으로 도출된다고 하였다. 이때, 제한된 범위에서 1만큼 벗어나 ㉠으로 도출된 수는 제한된 범위에서 1만큼 벗어나 ㉡으로 도출된 수보다 더 작은 수이다.

정답 ⑤

[오답해설]

- ① ㉠, ㉡은 모두 제한된 비트의 개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비트의 개수를 늘려주면 해결된다.
- ② ㉠, ㉡은 진법에서의 제한된 자릿수와 숫자의 무한한 특성 간의 괴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어떤 진법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오버플로는 이진법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댓값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뜻하고, 이 경우에는 실제 그 수가 아니라 이진법의 표현 가능 범위의 최솟값으로 도출된다고 하였다. 언더플로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므로 이진법의 표현 가능 범위의 최댓값

을 도출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을 통해서는 양수로 표현되어야 할 수가 음수로 표현되고, ㉡을 통해서는 음수로 표현되어야 할 수가 양수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이진법은 비트 수에 따라 표현 가능한 숫자의 범위에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 ㉡은 이진법의 제한한 비트의 개수로 인하여 표현 가능한 수의 한계와 실제 숫자의 무한한 특성 간의 괴리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3문단에서 어떤 이진법의 2의 보수는 그 이진법의 1의 보수에서 1을 더하여 도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이진법의 1의 보수와 2의 보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도출가능한 최솟값보다 더 작은 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N개의 비트 하에서 1의 보수로 도출가능한 수의 범위는 $2^n - 1$ 개이고, 1의 보수로 도출가능한 이진법 배열의 모든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2개의 배열로 나타내어지는 0의 배열 2개를 포함한 $100\cdots000(=-2^{n-1}+1)$ 부터 $011\cdots111(=2^{n-1}-1)$ 까지 2^n 개다.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서 음수에 해당하는 이진법에만 1씩만 더해주면 되므로 다시 도출가능한 수에 따른 이진법의 표현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100\cdots001(=-2^{n-1}+1)$ 부터 $011\cdots111(=2^{n-1}-1)$ 까지 나타내어진다. 이때 최솟값인 $100\cdots001(=-2^{n-1}+1)$ 에 대해서 더 적은 최솟값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2의 보수 하에서는 새로운 최솟값인 $100\cdots000(=-2^{n-1})$ 이 생긴다. 이때 3문단에서 같은 이진법 배열이어도 단순 부호화 방식, 1의 보수, 2의 보수 중 어느것이 적용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숫자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개수의 비트 하에서 일반적인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통하여 도출 가능한 수의 최솟값보다 더 작은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1의 보수가 아닌 2의 보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

[오답해설]

㉡ N개의 비트 하에서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사용하여 1의 보수로 도출가능한 수의 범위는 $2^n - 1$ 개이고, 1의 보수로 도출가능한 이진법 배열의 모든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2개의 배열로 나타내어지는 0의 배열 2개를 포함한 $100\cdots000(=-2^{n-1}+1)$ 부터 $011\cdots111(=2^{n-1}-1)$ 까지 2^n 개다. 이때, 2의 보수를 적용할 경우, 3문단에서 명시했듯이 1의 보수에서 0이 2개의 상이한 배열로 표시되는 오류가 수정되어 0은 다시 1개의 배열로만 존재하고 2의 보수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최솟값인 $100\cdots001(=-2^{n-1}+1)$ 에서 1을 빼 더 적은 최솟값인 $100\cdots000(=-2^{n-1})$ 을 나타낼 수 있게 되므로 음수 배열은 2^{n-1} 개가 되고, 0의 배열 1개, 양수 배열 $2^{n-1}-1$ 개가 존재하므로 이를 모두 합치

면 2의 보수로 도출가능한 이진법 배열의 모든 경우의 수는 2^n 개가 된다. 따라서 동일한 개수의 비트 하에서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사용하여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도출가능한 이진법의 모든 경우의 수는 동일하다.

③ N개의 비트 하에서, 비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사용하여 어떤 한 수를 표현하였을 때 그 수를 a 라고 하자. 이때 a 의 이진법 배열은 신호가 꺼지거나 켜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a 의 1의 보수의 이진법 배열은 a 의 이진법 배열 중 신호가 꺼진 자리는 켜서, 신호가 켜진 자리는 신호를 꺼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a 의 이진법 배열과 a 의 1의 보수의 이진법 배열의 합인 이진법 배열은 항상 111...111(1이 N개)이다. 이때 111...111은 수로 표현하면 $2^n - 1$ 이 된다. 이때 N개의 비트 하에서 도출가능한 모든 이진법 배열의 경우의 수는 2^n 개이므로 따라서 어떤 한 수의 이진법 배열과 그 배열의 1의 보수가 각각 나타내는 수의 합은 항상 N개의 비트 하에서 도출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서 1을 뺀 값과 동일할 것이다.

④ 3문단에서 1의 보수를 적용할 때에는 0이 상이한 2개의 배열로 표현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때 2의 보수를 적용하면 이 오류가 해결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이진법은 반드시 그 수에 하나의 배열을 가져야 하므로 1의 보수로 0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와 2의 보수로 0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의 차는 1이다.

⑤ 3문단에서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에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통하여 음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㉔의 상황이 구현될 경우 점수와 관련한 조건이 제대로 구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수 한계치를 넘겨도 종료되지 않고, 0점보다 낮아져도 종료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문단의 경우 이진법은 제한된 비트의 개수에 따라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41개의 '독버섯', 6개의 '잡초'를 얻은 후 낭떠러지에 떨어질 경우에는 $(-3) \times 41 + (-1) \times 6 = -129$ 점을 얻는다. 하지만, 이 경우 언더플로의 오류가 발생하여 실제 도출되는 점수는 126점이 된다. ㉔로 인하여 이 점수는 유지되고, 이때 사용자는 최고 기록인 124점을 경신할 수 있게 된다.

정답 ④

[오답해설]

① 3문단에서 기본적인 이진법을 2의 보수로 변환하려면 기본적인 이진법의 각 자리에서 0은 1로, 1은 0으로 바꿈으로써 1의 보수로 바꾼 후, 1의 보수에 1을 더하여 2의 보수로 변환시켜주면 된다고 하였다. 우선, '산삼'의 경우에는 10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8비트 부호형 정수 이진법을 적용할 경우 00001010이 되고 1의 보수를 적용하면

11110101, 2의 보수를 적용할 경우 11110110으로 인식한다. 다음으로, '독버섯'의 경우에는 -3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8비트 부호형 정수 이진법을 적용할 경우 10001000으로 인식하고 1의 보수를 적용하면 01110111로 2의 보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01111000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독버섯'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② '산삼'의 점수와 '당근'의 점수의 합을 이진법을 통하여 구할 경우 '산삼'은 10점이므로 00001010이 되고 '당근'은 3점이므로 00000011이 된다. 이때 필요한 받아들림의 개수는 1이다. 다음으로 '산삼'의 점수와 '감자'의 점수의 합을 이진법을 통하여 구할 경우 '감자'는 1점이므로 00000001이 된다. 이때 필요한 받아들림의 개수는 0이다. 따라서 두 계산에 필요한 받아들림의 개수는 동일하지 않다.

③ ㉔의 상황이 구현될 경우 점수와 관련한 조건이 제대로 구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수 한계치를 넘겨도 종료되지 않고, 0점보다 낮아져도 종료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문단의 경우 이진법은 제한된 비트의 개수에 따라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10개의 '산삼', 13개의 '당근', 2개의 '독버섯'을 얻을 경우 $10 \times 10 + 3 \times 13 + (-3) \times 2 = 133$ 점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오버플로의 오류가 발생하여 실제 도출되는 점수는 -122점이 된다. ㉔로 인하여 이 점수는 유지되고, 이때 사용자는 최고 기록인 124점을 경신할 수 없게 된다.

⑤ ㉔의 상황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낭떠러지와 관련된 조건과 점수와 관련한 종료 조건이 모두 제대로 구동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 게임은 8비트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을 사용하고, N개의 비트 하에서 부호형 정수 방식 이진법으로 도출가능한 최댓값은 $2^{n-1} - 1$ 이므로 따라서 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값은 $2^{8-1} - 1 = 127$ 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조건이 모두 구동할 때 단위점수인 '감자'와 '잡초'의 존재를 감안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0점부터 127점까지 획득이 가능하고, 점수와 관련한 조건을 감안할 경우 '잡초' 한 개만을 얻을 경우에는 -1점, '감자' 한 개를 얻은 이후 '독버섯'을 획득할 경우에는 -2점, '독버섯' 한 개만을 얻을 경우에는 -3점을 획득가능하므로 따라서 이 게임을 통해 도출가능한 최종적인 점수의 값의 모든 경우의 수는 $127 + 1 + 3 = 131$, 즉 131임을 알 수 있다.

[12~17] 독서

[12~17] 인문, (가) 과거 시험의 연원과 고려의 과거제 / (나) 조선의 과거제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가)의 5문단에서는 계수관시의 경우 개경에서는 개경시를 지방에서는 향시를 거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의 3문단에서 잡과는 향시 없이 중앙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으므로 따라서 고려 시대의 과거제의 모든 시험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응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정답 ④

[오답해설]

① (가)의 1문단에서 과거 시험은 한(漢)의 멸망 이후 수백여 년 간 지속되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隋)의 수 문제 때부터 세습 귀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사족(士族)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최초로 실시했다고 하였다.

② (가)의 4문단에서 송(宋)의 과거 시험은 향시, 회시, 전시로 나뉘지만, 고려의 과거 시험은 계수관시, 국자감시, 예부시로 나뉜다고 하였다.

③ (가)의 5문단에서 국자감 학생들은 국자감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이후 본시험에 해당하는 예부시에 응시하기 전에 별도 시험인 감시를 치렀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4문단에서고려 시대의 초기에는 과거제를 본시험에 해당하는 예부시만 실시하였다. 그러나 11세기 현종 이후에는 계수관시를 실시한 이후에는 국자감에서 국자감시를 응시하고, 이후 본시험인 예부시를 응시하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었다. 이때 (가)의 5문단에서 계수관시를 실시한 이후 국자감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국자감시가 사마시에 해당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11세기 현종 이후에는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계수관시, 국자감시, 예부시로 굳혀졌다.

13.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나)의 1문단에서 소과는 생원·진사시로도 불림을 알 수 있고, (나)의 2문단에서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붙은 경우에는 양시라고 하였단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자는 반드시 생원시와 진사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해설]

① (나)의 2문단에서 생원·진사시에 합격할 경우 바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받았으나 문과 초시 진출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했던 관시에 응시하려면 성균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관시에 응시할 자격은 바로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3문단에서 조선 시대 과거제의 시험은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의 시험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따라서 증광시, 별시, 알성시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험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별시는 식년시를 실시하는 식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경사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중앙에서 개최되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개최 빈도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생원·진사시와 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문과와 무과는 모두 수석 합격자부터 차례대로 갑과, 을과, 병과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고, 문과의 경우에 한해서만 수석 합격자에게 장원 급제자라 일렀음을 알 수 있다.

14.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갑과의 경우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일반 서민이나 천민은 응시하기 어려웠고, 양반의 경우는 천시하였다고 하였다. (나)의 5문단에 따르면 조선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고,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이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과는 중인이 집중적으로 응시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은 조선의 신분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야기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나)의 3문단에서 별시는 식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개최 빈도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이때, 지방의 소과에 합격한 유생들은 중앙과 가깝지 않을 경우, 비정기적 시험인 별시에 응시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은 별시 응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방의 유생들이 성균관에 입학함으로써 중앙의 정보에 대한 접근에 더 용이해지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해설]

① (가)의 5문단에서 복시는 국왕 앞에서 예부시 합격자의 순위를 매기는 특별한 시험이라고 하였다. 이때, (가)의 4문단에서 고려 시대의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관리에 임용되려면 예부시를 합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부시 합격자는 이미 관리로 임용된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은 관리 임용과는 아무 상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의 2문단에서 조선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의 세 시험을 시행하였고, 이중 초시와 복시 합격자에 한하여 전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나)의 2문단에서 전시는 모든 응시자들을 급제케 하여 갑과부터 높은 관직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은 능력에 따라 응시자에게 관직을 차등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5문단에서 복시는 국왕 앞에서 예부시 합격자의 순위를 매기는 특별한 시험이라 하였다. 따라서 ㉠은 예부시 응시자들의 순위를 가리고자 하는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의 2문단에서 갑과는 일반 서민과 천민들은 응시할 수 없었고, 양반은 천시하였다고 하였다. (나)의 5문단에 따르면 조선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고,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이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과는 중인이 집중적으로 응시함을 추론할 수 있다. 갑과는 중인이 의도하여 독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신분제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 중인만이 응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양반 계층으로부터 기술에 능한 특정 계층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려 한 장치라 볼 수 없다.

④ (나)의 2문단에서 조선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의 세 시험을 시행하였고, 이중 초시와 복시 합격자에 한하여 전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나)의 2문단에서 전시는 모든 응시자들을 급제케 하여 갑과부터 높은 관직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은

복시 합격자 중 일부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의 3문단에서 별시는 식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개최 빈도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이때, 지방의 소과에 합격한 유생들은 중앙과 가깝지 않을 경우, 비정기적 시험인 별시에 응시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당시 지방 유생들이 성균관에 입학하고자 한 것은 별시 응시의 기회를 더 얻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은 당시 지방 유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한 노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 (나)의 2문단에서 문과 전시에 합격하면 문관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4문단에서 과거에 의하지 않는 채용 방법인 천거와 음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중앙에서 문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부여하던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잡과의 경우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일반 서민이나 천민은 응시하기 어려웠고, 양반의 경우는 천시하였다고 하였다. (나)의 5문단에 따르면 조선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고,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이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잡과는 중인이 집중적으로 응시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은 당시 양반과 특정 계층이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이뤄진 양상이 아니라 중인 계층과의 의도는 상관 없이 조선의 신분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연히 이뤄진 양상이다.

1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ㄱ은 무예에 능통한 이는 무과에 응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는 고려 시대 사회의 양상과 부합하지 않고, 조선 시대 사회의 양상과 부합한다. ㄴ은 과거에 의하지 않는 채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고려 시대의 사회와 조선 시대 사회의 양상과 모두 부합한다. ㄷ은 문관을 등용할 때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와 작문 능력 중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때 (가)의 3문단에서 고려 시대에서는 유교 경전의 해석을 시험하는 명경과보다 작문 능력을 시험하는 제술과의 능력을 우대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1문단에서 조선 시대 전기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력을 시험하는 생원시에 합격한 생원을 작문 능력을 시험하는 진사시에 합격한 진사보다 더 우대했고, 조선 시대 후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시대 사회와 조선 후기 사회의 양상과는 부합하지 않고 조선 전기 사회의 양상과는 부합한다. ㄹ은 과거제는 양인층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ㄹ은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 사회와 조선 후기 사회의 양상과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 후기 사회는 ㄴ에 동의하지만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정답 ㉡

[오답해설]

- ① 고려 시대 사회는 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③ 고려 시대 사회는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조선 전기 사회는 ㄷ에 동의할 것이다.

⑤ 고려 시대 사회는 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㉔에서는 신라의 독서삼품과가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의 삼품(三品)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 유교 경전의 이해도와 제자백가의 저서에 능통한지의 여부에 따라 삼품(三品)을 초월하여 등용하기도 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나)의 2문단에서 조선 문과 수석 합격자는 장원 급제자라 불렸으며, 갑과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과 수석 합격자를 장원 급제자라 이르는 것을 갑과를 초월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라의 독서삼품과에서 삼품(三品)을 초월하여 등용하는 것과 조선 시대의 문과에서 장원 급제를 부여하는 것은 유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해설]

① ㉔에서는 신라 시대의 관리 채용에 있어서는 천거가 일반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가)의 1문단에서 이러한 양상은 수(隋)의 수 문제가 과거 시험을 최초로 시행하기 이전과 유사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 국가는 송(宋) 아니라 수(隋)이다.

② ㉔에서는 신라의 6두품 이하의 신분을 지닌 이들이 본국 내에서 관리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겪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나)의 5문단에서 서열은 중인 계층으로 법제적으로 과거 시험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계층이지만, 실제로는 문과 응시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6두품 이하의 신분을 지닌 이들과 서열이 받은 차별의 양상을 각각 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는 시험은 응시할 수 있었으나, 출세에 제한이 존재하였던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둘의 차별의 양상은 유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㉔에서는 신라의 6두품 이하의 신분을 지닌 이들이 본국 내에서 관리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겪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범위가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나)의 2문단에서 문과 전시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시작 품계를 차등 배분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작 품계를 차등 배분하였을 뿐 능력에 따라 품계를 얼마든지 오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조선 전시의 시작 품계의 차등 배분과 신라의 관직 범위의 한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⑤ ㉔에서는 신라의 독서삼품과는 관리 채용에 있어 유교 경전에 이해도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의 3문단에서 고려의 명경과는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시험하였고, (나)의 1문단에서 조선 시대의 생원시는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시험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독서삼품과와 고려의 명경과, 조선의 생원시는 모두 중시한 기준이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진사시의 경우에는 작문 능력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독서삼품과와 고려의 명경과, 조선의 진사시가 중시한 기준이 유사하다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은 진술이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㉔의 '생원과 진사를 뽑았다.'에서 '뽑았다'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라는 뜻이다.

정답 ㉔

[오답해설]

- ㉑ '소리를 길게 내다.'라는 뜻이다.
- ㉓ '원료나 재료로 길게 생긴 물건을 만들다.'라는 뜻이다.
- ㉕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라는 뜻이다.
- ㉖ '속에 들어 있는 기체나 액체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라는 뜻이다.

[18~21] 문학

[18~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조웅전'

연계: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pp.135-138, '조웅전'

18.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윗글에서는 조웅이 도업을 배운 이후 묘술을 배워 달통하는 데서 이를 서술자가 개입하여 괄목상대할 만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하여 인물의 비범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정답 ㉕

[오답해설]

- ㉑ 윗글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서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 ㉒ 윗글에서는 인물의 회상을 통한 인물의 성찰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 ㉓ 윗글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순행적 구성으로 서술되고 있다.
- ㉔ 윗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인물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1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윗글에서는 조웅이 ㉠을 작성한 데에 대하여 이두병이 분노하고 이로 인하여, 이두병은 조웅을 잡아들이라고 조신에게 명령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금관의 보고에 따르면, 황명에도 불구하고 조웅을 잡아들이는 것은 실패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두병이 분노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장안을 에워싸는 것은 황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협박에 의한 신하들의 공포에서 행한 조치이므로 따라서 장안을 에워싸는 것을 이두병이 명령한 것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해설]

- ① 이두병과 조신은 ㉠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경화문의 관원들에게 묻고 있는데, 이는 경화문의 관원들이 밤이 지나고 보니 ㉠이 붙여 있었고, ㉠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던 데서 기인한다. 그 후, ㉠이 붙어 있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화문의 관원들은 곤장을 맞고 내쫓긴 것을 알 수 있다.
- ② 이두병은 조웅이 ㉠을 쓴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신에게 ㉠을 쓴 데에 대하여 조웅 모자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조웅은 ㉠을 통하여 이두병이 태자의 황위를 찬탈한 것은 부정한 일이며, ㉠의 내용에서 천명이 온전한데 이두병이 장수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 나옴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두병이 태자의 황위를 찬탈한 데에 대하여 천명이 심판하리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고, 이두병이 지닌 죄목을 많음을 ㉠을 통하여 강조함을 알 수 있다.
- ⑤ 조웅은 ㉠의 내용을 통하여 이두병이 송업(宋業)을 망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태자의 황위를 찬탈한 것을 비판함을 알 수 있다.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에서 조웅이 이두병에게 쓴 글에 인용하여 고사에 따르면 진시황의 날랜 사슴이 임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종의 신묘로도 임의로 못 잡았기에 임자에게 주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조웅이 이두병의 황위 찬탈과 관련하여 이두병을 비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인용된 고사는 군주에게 충의를 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황위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해설]

- ① ㉠을 통하여 경화문의 관원이 이두병에게 문 밖에 있는 글에 보고함으로써, 궁궐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을 통하여 조웅이 쓴 글에 대하여 이두병이 분노함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이두병이 조웅을 찾고자 분주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하여 조웅이 철관 도사를 만나기까지 고행길을 겪어야 함이 드러나고 있다.

⑤ ㉔를 통하여 조용이 철산 도사를 만나기까지 여러 번 고행길을 겪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노인이 조용에게 보검을 전해주는 것에 대하여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에는 이미 보검이 조용의 보배라는 노인의 인식이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보검의 주인이 조용으로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소설의 비현실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보기>에 따르면, 조용은 처음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니기보다는 점차 수련을 통하여 비범한 능력을 얻게 된다고 보았고, 이때에는 이두병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조용은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인이 조용에게 보검을 건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인식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해설]

① 조용이 노인에게 보검을 받을 때, 노인과 조용이 한 대화에서 보검의 주인이 정해져 있고 노인은 이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 소설에서의 비현실적인 요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조용이 철산 도사가 권하는 책을 완독하고, 다른 책을 더 청하는 데서, 조용이 영웅이 될 만한 비범함을 갖췄음을 알 수 있고,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용의 노력은 소설에서의 전기적인 요소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조용이 하는 노력은 현실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④ 말이 조용을 받기며 다가가는 것은, 철산 도사의 반응을 감안한다면, 하늘이 용마의 주인을 조용으로 정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살펴본다면, 용마의 주인이 조용이라는 것에서 조용이 지닌 영웅적 면모와 비범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조용이 철산 도사에게 도업을 배운 지 일 년이 지나 묘술을 달통했다는 서술에서 조용이 조력자인 철산 도사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여 비범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이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조용의 능력이 괄목상대할 만한 것임이 편집자적 논평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7] 갈래복합 - (가)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 (나) 윤동주, '참회록' / (다) 정약용, '여유당기'

연계: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pp.85-87, '노정기(路程記)'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가)에서는 직유법과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고, (나)에서는 화자가 지난날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써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나'가 부득이하게 행해야 하는 일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면서, 지난날의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나'의 지난날의 삶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해설]

- ①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나)와 (다)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 (나), (다)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식을 반전시키고 있지 않다.
- ④ (가), (나), (다)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하였다' 식의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나)는 '~했던가' 식의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다)는 반면에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다)에서 '나'는 부득이하게 행해야 할 일과 그만두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때 부득이하지 않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깨달음에서 '경례'를 논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그만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부득이하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하는 데에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일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조신(朝臣)의 시비를 말하는 것'과 '옛 기물'을 '모으'는 것을 하지 않은 데에는 모두 '나'의 마음에 크게 두려움 야기하지 때문에 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경례'를 논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그만두는 이유가 '나'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해설]

- ② ‘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거울에 시내를 건너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거울에 시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이 그동안 시내를 건너지 않았던 것은 부득이하게 행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만둘 수 있는 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거울에 시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이 시내를 건너게 된 데에는 시내를 건너는 것이 부득이한 일로 변모했기 때문에 건너려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나’가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 모르고, 행동하는 데 있어 의심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데에는 모두 부득이한 일에 속하므로, 따라서 그만둘 수 없는 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나’는 어려서부터는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서 돌아설 줄 몰랐으며,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쳤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나’는 부득이하게 행해야 하는 일과 그만둘 수 있는 일 사이를 가르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선(善)을 좋아한 ‘나’가 옳은 일을 행했음에도 비방을 들었던 데에는 ‘나’가 신중하지 못하였기에 그랬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려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임이 분명하지만, 위 상황을 고려하면 ‘나’의 행동거지가 해롭지 않은 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선(善)을 행하는 일이 언제나 부득이한 일에 속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나)의 화자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왕조의 유물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자신의 얼굴이 ‘욕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왕조의 유물이라 표현한 것은 지난날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수치스러워하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날 뿐, 화자의 희망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해설]

- ① (나)의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라고 하는 데서 (나)의 화자의 성찰에 대한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나타난 얼굴은 (나)의 화자 자신의 얼굴임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거울’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뜻하며, 이를 통하여 (나)의 화자의 앞으로의 운명이 암담할 것을 암시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참회록을 씌으로써, 과거의 회한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하여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회록을 쓰는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다)에서 선을 끝없이 좋아하던 ‘나’가 남에게 비방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나’는 그러한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나’의 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은 ‘나’의 운명에 의하여 그러한 일이 야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 때문이기에 운명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사태를 ‘나’의 운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③

[오답해설]

① ㉠은 자기가 하고 싶지만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거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을 지킨다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앞으로 ‘나’가 삶을 사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고, 얻는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하지 않은 일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일임에도 그만두어야만 한다는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가)의 화자는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같이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또한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는 것같이 남들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의 화자는 그동안의 자신의 일생, 즉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돌아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정답 ⑤

[오답해설]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운명이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

각하며 좌절감에 빠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삶의 티끌’은 그동안 (가)의 화자가 살아온 암담하고 비극적인 삶을 의미하므로, (가)의 화자가 지향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화자는 항상 ‘밤’이면 태풍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지향했던 ‘산호도’에 갈 수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평선’을 ‘기오른’ 이후에는 절망적인 현실이 해소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궁치’가 ‘발목’을 ‘에워싼다’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절망적인 현실이 잠시나마 해소된 이후, 다시 비극적인 현실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의 절망적인 현실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의 꿈이 ‘서해를 밀항하는 썰크’와 같이 불안정하고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지향했던 ‘지평선’을 ‘기오르’고자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여, ‘지평선’에 오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화자는 항상 ‘밤’이면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오르면서 고달픈 삶을 겪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후, ‘지평선’에 ‘기오르’며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나, ‘시궁치’는 화자가 ‘지평선’에 오르도록 돕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다시 절망적인 현실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을 참회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의 경우는 ‘내일’이나 ‘모레’의 어느 즐거운 날에 쓰는 참회록의 내용이므로 따라서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해설]

① (가)의 화자는 ‘남십자성’과 같은 희망이 찾아오기를 바라왔으나, <보기>를 참고한다면 (가)의 화자는 희망과 요원했던 삶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고, ‘남십자성’이 ‘그곳을 비쳐 주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나’의 좌절감과 슬픔을 드러내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항해로, 자기 자신을 배로 비유한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가)의 ‘깨어진 배 조각’은 ‘나’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인생을 형상화하는 소재로, 이를 통하여 ‘나’가 앞으로 살아갈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가)의 ‘젊은 날’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가)의 화자가 남들같이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없었던 데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는 것은 적절하다. (나)의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은

화자의 자신의 지난 삶의 기간에 대한 철저한 실존적 자아 성찰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의 ‘태풍’은 ‘나’가 과거에 삶을 살아오면서 얻었던 상처와 아픔을 형상화하여 ‘나’의 고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내 얼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통하여 화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다.

[28~31] 문학

[28~31] 현대소설 - 염상섭, ‘만세전’

연계: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pp.164-167, ‘만세전’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나’가 일본에 유학을 떠났던 칠 년의 시기 동안 경찰관들의 대우는 나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였으나 그 이외의 일본인들은 ‘나’가 일본에 있는 동안 민족 의식을 일깨우도록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나’가 일본에 있던 칠 년 동안 민족의식을 일깨웠던 것은 경찰관뿐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해설]

① ‘나’는 목욕탕 안에서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분노는 일본인들에게 티가 나지 않았고, 욕객은 쏟아져 나왔을 뿐, ‘나’의 분노는 그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② ‘나’는 적개심과 반항심이 상대적으로 능동적이고 침착한 심리 상태에서 발현되기보다는 피동적이고 감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더 잘 발현된다고 생각하였다.

③ ‘나’는 소학교에서 일본인 교사와 충돌한 끝에 퇴학을 당한 적이 있었다. 유년 시절의 ‘나’는 그 이후로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하는 등 애국심이 충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성장하면서 독립 운동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됨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독립 운동에 대하여 열성적으로 참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9.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일제 강점기 대의 지식인이었던 ‘나’는 우리 민족이 국권 침탈을 당한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은 망국의 백성인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어떠한 불의를 당하든 ‘나’는 지난 십 년 동안 관대하게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인들이 불의를 당하든 간에 ‘나’는 외면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므로, 따라서 지식인으로서 조선인들이 더 화목하게 살고자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고려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해설]

① 일본인 상인의 진술을 보면 과거에는 한밑천을 잡았으나, 현재에는 어려워진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조선인들에게 부당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은 이를 통하여 조선인들이 똑똑해졌기에 일본인들의 기만적 수단으로 더 이상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② ㉢은 일본인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 대만의 생변과 비교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조롱하는 구절로 이를 통하여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모멸당하는 현실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④ ㉣은 난로의 불길을 뱀의 혀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널름널름 내어다보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당대의 시대적 상황으로 비춰서 고려한다면, 난로의 불길을 빨간 뱀의 혀로 묘사한 데에는 당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것임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⑤ ㉤은 조선 백성들이 이미 일제 치하의 식민지 사회에서 공동묘지에 사는 것처럼 비극적인 현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나’가 어리석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공동묘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조선 민중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에 대한 연민과 비판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30.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오랜 몽유병은 조선 민중이 민족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참고자 하는 현실로, 이를 고려한다면 ㉡는 조선 민중이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꼭 각성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관념적 의미를 더한다. 무덤은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시든 배춧잎 같고, 주늑이 들거나 아니면 천한 웃음을 지을 뿐인 현실을 상기시킨다. ㉢은 조선 민중이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비관적인 현실을 겪고 있다는 관념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대의 지식인 계층에 속한 ‘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마비됐던 민족 관념이 다시 되살아나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서 따라서 ㉡, ㉢은 관념적 의미를 지니고, 이를 통하여 ‘나’의 각성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해설]

① ㉑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탄압과 민족적 차별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는 현실을 뜻하고, 이 현상이 고착화될 경우, 조선인들은 각성하지 못하여 일본인들의 탄압과 민족적 차별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㉒에 대하여 투영된 '나'의 염원인 조선 계층이 깨어나 일본에게 저항하리라는 염원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② ㉑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탄압과 민족적 차별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는 현실을 뜻한다. 이때 ㉒에서 깨기 위해서는 민족 관념이 깨어나 일본인들이 행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저항하여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한다는 자각을 얻어야만 한다. 다만,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나'의 경우 ㉒에서 조선인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만을 인식할 뿐, 실제로 ㉒에서 깨어나기 위한 행동을 행하지 못했으므로 따라서 ㉒에서 먼저 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㉒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도록 '나'가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㉒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소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오랜 몽유병은 조선 민중이 민족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참고자 하는 현실로, 이를 고려한다면 ㉑는 조선 민중이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꼭 각성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관념적 의미를 더한다. 무덤은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천한 웃음을 지을 뿐인 현실을 상기시킨다. ㉒는 조선 민중이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비관적인 현실을 겪고 있다는 관념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와 ㉒는 모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겪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㉒는 조선 민중이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비관적인 현실을 겪고 있다는 관념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조선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연상시키는 소재와는 거리가 멀을 알 수 있다. 오랜 몽유병은 조선 민중이 민족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참고자 하는 현실로, 이를 고려한다면 ㉑는 일제의 탄압을 묵인하는 현실이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조선인들에게 진정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결박을 지은 여자'와의 상황에서 '순사'가 비인간적인 처우를 '결박을 지은 여자'에게 행하는 것과 '순사'가 결박을 지은 여자'와의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데서 '나'가 순사에 대하여 연민과 반감의 상반된 정서를 가지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그러나, 이후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면서 본 두 청년과 헌병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였다. 또한, 최근에 적개심과 반항심이 생기면서 '나'의 신경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는 우리 민족이 처한 민족적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기력할 뿐, 여전히 우리 민족이 처한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어쩔 수 없이 외면할 뿐

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해설]

② '나'가 어릴 적에 '애국심'이 열렬하였으나, 소학교에서 일본인 교사와의 충돌을 겪은 직후 소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이후까지 현재 당대의 지식인인 '나'는 독립 운동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직면하였던 민족적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③ '나'가 어릴 적에 '애국심'이 열렬하였으나, 소학교에서 일본인 교사와의 충돌을 겪은 직후 소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유년 시절에는 상당히 애국심이 충만하였으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는 민족 관념'에 대한 인식을 일제 강점기 이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고뇌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현실에 대한 고뇌를 하지 않을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는 데서 당대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④ '나'가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시든 배춧잎'과 같다고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 청년들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면서 비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연민과 반감이 교차하는 '나'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져버려라!'는 당시 의식 없이 시대를 살아가던 조선 민중은 물론, 그 시대를 살아간 자기 자신에게도 비판적으로 말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조선인에 대한 비판 의식과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김병연, '월생월'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정약용, '탐진춘요'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나)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파리'와 '두터비'의 관계를 관찰하는 시적 화자가 서술하지만, 종장에서는 '백송골'을 피해낸 '두터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적 화자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동일한 인물로 고정되지 않으며, (나)는 당시 시대상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해설]

① (나)에서는 ‘최고 권력자’-‘탐관오리’-‘백성’의 관계를 동물로 의인화하여 시대상을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최고 권력자’는 ‘백송골’에, ‘탐관오리’는 ‘두터비’, ‘백성’은 ‘파리’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는 황두가 이방에게 곡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서 백성에게 무명을 어서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명분이 뒤로 도치되어 강조됨으로써, 당시 시대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종장에서 ‘두터비’의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에서는 무명을 이방이 수탈해 가는 상황을 묘사하여, 백성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두터비’와 ‘파리’를 대조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고, (다)에서는 무명을 눈결같이 곱다고 하면서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해설]

(다)에서는 정약용이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사회상을 목격하여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약용은 백성들이 수탈당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당대의 관리들에게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편찬한 데서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다만, 정약용은 (다)를 지었을 당시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을 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없었음이 드러나고, 따라서 정약용은 목민관으로서 당대 백성들의 괴로움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해설]

② (나)에서는 ‘두터비’가 ‘파리’를 잡아 먹는 데서, 당시 중간 권력층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고 수탈하는 데에만 급급함이 드러나지만, ‘두터비’가 ‘백송골’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넘어졌다고 하는 데서, 중간 권력층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간 권력층의 위선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나)에서는 ‘두터비’의 태도를 표현하여 양반 계층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는 ‘두터비’가 ‘백송골’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황하여 넘어졌다고 하였다. 이를 종장에서는 ‘두터비’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최고 권력자 앞에서만 굽신하는 것을 비판한다. 따라서 (나)에서는 ‘두터비’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당대의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음은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화자와 (다)의 화자 모두 백성들이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두 작품의 화자 모두 백성들이 탐관오리에게 수탈당하지 않는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윗글에서는 (나)에서는 양반 계층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비판하며, 이를 통하여 외세 침략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양반 계층의 이중성을 지적하여 양반 계층의 비굴함을 비판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나)에서 ‘백성’은 ‘탐관오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있음이 작품의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는 동물에 대응하여 본다면 ‘파리’는 ‘두터비’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리’는 당시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애환을 드러내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다만, (가)에서는 지역 유지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애환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에서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침지’, ‘석사’, ‘생원’, ‘진사’의 한자어를 붙여 조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본다면 각각 ‘모기’, ‘벼룩’, ‘원숭이’, ‘쥐’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속함을 알 수 있고, 고양이는 시적 내용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 없이 나온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근거를 고려하여 본다면, ‘파리’는 (가)의 ‘쥐’와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해설]

① (가)에서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침지’, ‘석사’, ‘생원’, ‘진사’의 한자어를 붙여 조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본다면 각각 ‘모기’, ‘벼룩’, ‘원숭이’, ‘쥐’ 등의 동물을 들어서 지역 유지를 조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로 된 시와 그 내용을 대조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두터비’는 ‘파리’를 무는 대상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수탈을 행하는 탐관오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당시 양반들이 백성에게 자행한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두터비’는 ‘백송골’이 떠있는 것을 보고 놀라 ‘두힘’ 아래로 넘어졌음이 드러나고 있고, 이후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다쳤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두터비’가 ‘파리’를 문 태도는 이와 달리 당당하고, 두려울 게 없는 태도임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두 태도를 대조한다면, 이를 통하여 양반층의 허장성세를 드러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황두’는 ‘이방’과 상하 관계를 이룸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에서 최고 권력자에 속하는 ‘백송골’과 중간 권력층에 속하는 ‘파리’가 상하 관계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황두’는 백성에게서 수탈하기 위해 갖은 핑계를 댄으로써 이를 이루려 하므로 따라서 탐관오리의 비겁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